**마0608 Note**

**◆ 도우미: 기도해야 하는 이유**

(해긴 목사님의 기도의 기술에서)

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

존 웨슬리 "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.

누군가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

없습니다"

또한 성경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제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

우리는 깨닫지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제한해 왔습니다.

시7841. 뿐만 아니라, 그들이 다시 돌아서며(슈브: 돌아가다, 돌아오다, 물러가다, 반대하고, 계속적으로, 부인하다, 물러서다, 다시 가다, 밖으로 나가다, 곡해하다, 후퇴시키다, 회복하다, 다시 갚다, 회복시키다, 만회하다, 돌이키다), 하나님을 시험하였느니라,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한계를 설정하였느니라(타바흐: 슬퍼하다, 한계를 긋다),
Yea, they turned back and tempted God, and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.

살인,어린이들의 기아로 인한 사망, 전쟁,지진 등등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

있지 않습니다.

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.

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수행되고 있지

않습니다.

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.

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"내가 너를 통해 다스릴 것이다" 라고 하지

않으셨습니다.

"내가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게 하겠다"고 하셨습니다

창0128.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,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, 열매를 많이 맺고(파라:열매를 맺다,열매를 내다,결실하다,결실이 풍부하다, 자라다, 증산하다) 번식하라(라바:증가하다,풍성하게,확대하다, 능가하다, 대단히, 충분하다, 성장하다,쌓다,늘다,길다,많은,더 많은,더 많이 주다,너무 많다,더 많이 모으다,많이 산출하다,증가하다,양육하다,매우), 땅을 채우고(말레: 채우다, 충만하다,성취하다, 완성하다, 가득해지다,흘러넘치다,공급하다,함께 모이다, 다시 채우다, 만족시키다, 세우다) 그것을 정복하라(카바쉬:짓밟다,멸시하다,정복하다,복종시키다, 침해하다, 속박하다,강요하다,억누르다,억압하다), 또 바다의 물고기들에 대해, 공중의 새들에 대해, 땅에서 움직이는 낱낱의 생명 있은 것들에 대해 지배권을 가지라(라다: 짓밟다,정복하다,부수러뜨리다,지배권을 가지다,이기다,통치하다,다스리다,취하다)

이 땅을 다스릴 지배권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.

아담이 죄를 지어 마귀에게 이 세상의 신의 자리를 내주게 됨으로

이제는 아담 대신에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.

아직도 사단은 이 땅에 있을 권리가 있으며, 다스리고 있습니다.

눅0406. 그리고 마왕이 그분께 말하니라, 모든 이 권능(위임받은 권능, 엑수시아: 능력, 특권, 힘, 재능, 지배, 자유,행정장관,군주,통제의 상징, 영향력, 권위, 사법권, 권리)과 그들의 영예(독싸:거룩,위엄,거룩한 영예,찬양,경배)를 내가 네게 줄 것이니라. 이는 그것은 내게 넘겨진(파라디도미:항복하다,포기하다,맡기다,보내다,배신하다, 생기다,던지다,위임하다,인도하다,넘겨주다,모험하다,투옥하다) 것임이라, 그리고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그것을 주느니라.

Ω마0829. 그런데 보라, 그들이 울부짖으며 말하되, 예수,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여,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? 때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께서 이곳에 오셨나이까?

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,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지

않습니다,

하나님은 마귀의 권세를 찬탈하지 않으셨습니다.

다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권세를 부릴 그 권도만을 없이 하셨습니다.

마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세를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갖고

있습니다. 다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그 세도를 부릴 수 없습니다.

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사탄의 머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습니다.

만일 그러시다면, 하나님도 사탄으로부터 사탄과 똑같이 비난 받으실 것입니다.

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개입하셔서 마귀로부터 이 다스림을 빼앗으실 수는 없습니다.

마귀는 아담으로부터 빌렸기 때문에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.

그대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

사탄이 손도 댈 수 없었던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.

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권세를 다시 되찾았습니다.

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

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께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.

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신다 해도,

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

원하십니다.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.

겔3637. 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,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도록, 내가 이스라엘 집에 의해서 이것에 대해 요구를(다라쉬: 묻다,찾다, 요구하다, 조사하다) 받을 것이니라, 내가 양떼와 같이 그들을 사람들로써 불릴 것이니라.

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으며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사탄의

권력보다 상위의 권력입니다,

우리는 죄 가운데에 살아서는 안됩니다. 우리의 권력과 권한과 권위와 세력을

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.

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면 다시 마귀가 우리에게 개입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

군수가 시장에게 권도를 부릴 수 없습니다. 그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

것입니다. 그러나 시장이 군수에게 책 잡히면 군수에게 끌려다니게 되어 시장의

권력을 군수에게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.

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 가운데에 거하면, 마귀에게 우리의

권력과 권세를 넘겨주게 됩니다.

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

예수님의 권력으로,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며, 하나님 나라를

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.

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,

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기다리십니다.

누가 합니까? 우리가 해야 합니다.

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,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.

이 세상은 보이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, 보이지 않는 영의 전쟁을 우리가

수행하여야 합니다.

육과 혈과의 싸움을 하지 말고, 보이지 않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십시요.

사랑은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.

마귀가 다른 것은 잘 흉내를 내지만, 그는 사랑만은 흉내내지 못합니다. 마귀와

악귀의 세계에서는 명령과 복종만 있지,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

없습니다.

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강력한 마귀에 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.

우리의 싸움은 영의 전쟁이고, 영의 싸움이고,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들과의

싸움입니다.

올바름에 바로선 사랑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.